제주가치돌봄 신청자 급증에 예산 부족 우려

올 상반기 이용자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 집행률 70%대
도 "필요도 따른 우선순위 배분… 예산 부족시 추경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돌봄 정책인 '제주가치돌봄' 신청이 올해 크게 늘면서 일부 현장에서 신규 신청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 부족이나 접수 제한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대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가치돌봄은 장기요양 등 기존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일시재가·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운동지도·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제주가치돌봄 이용자는 2024년 4458명에서 지난해 833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이용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2% 증가했고 6월 12일 기준 누적 이용자는 2만438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며 8월 기준 신청자는 제주시 7458명, 서귀포시 4832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난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읍면동 전담 인력을 배치해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예산도 매년 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4년 34억9600만원, 지난해 66억원, 올해 87억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13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부에 국비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집행률은 제주시 70.5%(집행액 37억4700만원), 서귀포시 79.4%(27억원)로 집계됐다. 남은 예산은 제주시 약 30%, 서귀포시 약 20% 수준으로 신청 급증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신규 접수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수행기관 관계자는 "최근 행정으로부터 예산이 마감돼 신규 접수를 안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도내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한정된 예산에서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부터 지원하는 구조여서 필요도가 낮은 신청자는 대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신청자가 가치돌봄으로 연계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도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신규 신청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 증가 추세로 볼 때 연말에는 예산 부족이 예상돼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도 서비스 중단은 없으며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시 아동급식지원사업 이번엔 빈틈 없을까

8월 이용률 50% 미만 149명
카드 미수령·신규 신청 적잖아
전화 상담·가정 방문 관리 강화

연말까지 석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제주시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액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아동 수가 적잖은 실정이다. 이들은 최근 신규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해놓고도 카드를 미수령해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로 파악되고 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아동급식 지원사업 규모는 아동 3567명 대상이며, 지원액은 48억5400만원이다. 이 사업은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가운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동 1인당 1식 단가는 1만원이다. 방학이나 학기중 토·일요일, 공휴일 등에 중식이 지원되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연중 조식과 석식비가 적용된다.

이처럼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올해 8월말 기준 대상자 가운데 이용률 50% 미만인 제주시지역의 아동수는 149명으로 파악됐다. 신규 신청자 140명과 카드 미수령 9명이다.

이에 제주시는 아동급식카드의 안전하고 건전한 사용을 위해 연말까지 급식카드 이용실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급식카드 이용 대상 아동에게 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이용률이 50%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카드 미사용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동 결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근 감사에서 아동급식카드 대상자 관리 소홀 등으로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2~3월 제주시 5개동과 서귀포시 4개동에 대한 2023년 이후 민원처리 실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24~2025년 2년간 이도2동·노형동·동홍동에 거주하는 아동 36명에게 지급된 급식비 3514만2000원이 한 번도 쓰이지 못한 채 소멸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 이뤄진 2023년~2024년 감사에도 조천읍·한경면·안덕면에서 아동 79명에게 지급된 급식비 5566만9000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된 바 있다.

해당 읍면동은 1~3분기(1~9월)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4분기(10~12월)가 돼서야 가정방문 없이 문자, 전화로만 급식비 지원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귀포시 법환동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전국 1위

자체상품 개발·마을어장 개방 등 호평

서귀포시 법환동어촌계가 정부의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평가에서 지난해 2위에 이어 올해 1위 자리로 도약했다.

서귀포시는 법환동어촌계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평가'에서 제주도 최초로 전국 1위인 최우수공동체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49곳(제주시 27, 서귀포시 22)이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가운데 우수한 곳을 선정해 보조금과 포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가 추천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평가를 거쳐 점수가 높은 4곳을 1차 선정한 뒤, 최종 심의를 통해 최우수 1곳, 우수 1곳, 장려 1곳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환동 공동체는 ▷해녀·테왁 키링 등 자체상품 개발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판로 확대 ▷마을어장 일부 개방을 통한 관광객과의 상생도모 ▷해양쓰레기 수거 및 개닦기를 통한 산란장 조성 등 자원 회복과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

이를 통해 국비 8600만원을 포함해 지방비(40%)와 자부담(10%) 등 자원 조성,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7200만원을 확보했다.

앞서 법환동 공동체는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2위 성적을 내며 국비 6600만원과 지방비 5000만원 등 1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백금탁기자

신혼·출산 가구 위한 '3만원 주택' 3차 모집

도,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제주지역의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3만원 주택' 사업의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 가운데 3만원만 내고, 나머지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부부 200%) 이하인 가구다.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이미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소범기자

"저축하면 목돈으로"… 저소득층 자립 돕는다

제주시, 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 통해 2444명 지원

제주시가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 등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층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 이후 가입자 2444명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포함)를 통해 올해 8월말 기준, 8771건에 19억578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최종 예산액은 31억원 규모다. 실제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했던 K씨는 사업 초기인 2022년부터 3년간 매월 꾸준히 저축한 결과, 지난해 본인 적립금 1440만원을 포함해 총 3400여만원의 만기 적금을 수령했다.

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자립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자산형성 지원과 자활사업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